한 형 조

무문관 밖방

64

조주의 잣나무 ②

이때 언어나 논리적 장치도 거추장스럽긴 마찬가지이다. 언어는 사물을 기술하는 도구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규약이나 개념적 지도(地圖)를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대개 그것은 우리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고 익힌 것이다. 그러나 선의 비밀을 꿰뚫은 사람은 그 범주를 저만큼 넘어선다. 그래서 "말은 일을 시러 펴지 못한다(言無展事)"라고 했다. 언어는 불완전한 도구이다. 언어는 한 인간의 내적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 주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 "말을 받드는 자는 잃고, 구절에 걸리는 자는 헤매게 되어 있다(承言者喪, 滯句者迷)." 일상의 감정이나 생각도 그렇거늘, 특히나 그것이 궁극의 비밀에 연관된 것일 때는 더욱 더 하다.

나의 내밀한 심리나 정서를 타자와 직통으로 연결시켜주는 언어적 통로는 없다. 언어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보조, 이를테면 공감(共感 sympathy)이나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 등이 필요하다. 선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사이는 이 기제로 의사를 소통한다. 가령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제자들이 스승을 대하는 다양한 반응이나 태도를 눈여겨보라. 은근한 눈짓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동안 골탕먹인(?) 스승의 뺨을 냅다 갈기기도 한다.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큰 절을 올리기도 하지만, "당신의 불법도 별 것 아니었구만" 하고 콧바람을 뿜기도 한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런 모욕(?)을 지극히 당연스럽게, 나아가서는 대견하게(?) 여기는 스승의 태도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비밀스런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있다. 이른바 "마음에서 마음으로(以心傳心)"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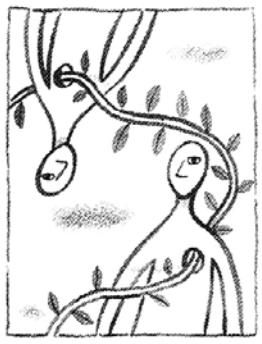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언어는 이때 보조적 수단일 뿐, 주요한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들만의 비밀'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은 언제나 초점을 잃고 미끄러지며, 엉뚱한 곳으로 헤매게 되어 있다. 선사들은 그래서 말을 아끼고, 한번 내뱉은 말은 늘 다시 거두어들이려 조바심한다. 이건 참시자 이래의 전통이다. "나는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 이래 48년동안 한 번도 내 긴 혀를 늘여 설법한 적이 없다."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시치미를 떼는 것일까. 혜개의 말마따나 "말은 기틀을 던지지 못하기(語不投機)" 때문이다. 여기서 '던진다'는 말은 그물을 던져 물고기 따위의 목표물을 건져올리는 것을 말한다. 기틀이란 주관적으로는 정신의 내적 움직임을 뜻하고, 객관적으로는 미묘한 궁극적 진실을 뜻한다. 이 둘은 본시 같은 실재의 두 얼굴이다. 원효의 어법을 빌리자면 일심(一心)은 곧 여래(如來)의 실상(實相)이고 법계(法界)의 실제(實際)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진실을 곧바로 지시해주지 못하고 늘 과녁을 벗어난다고 했는데 조주는 어째서 궁극의 핵을 묻는 학인에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했는가. 기실 조주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여기서 침묵으로 대답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코를 잡고 비틀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몽둥이 세례를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응답 또한 그 진의가 납득되지 못할 때는 직설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과녁을 빗나가긴 마찬가지이다. 아니, 그 방법이 래디칼한만큼 더 참담한 실패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조주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100여년을 무르익은 고불답게 온건하고 자상하고 치밀하다. 젊은이의 과격함이나 성급함이 세월과 더불어 깎인 탓인가. 그에게는 흰 수염 흩날리는 이웃집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을 이끄는 조심스런 손길이 있다.

뜰 앞에 잣나무는 일정한 대상이 아니다. 조주는 오히려 우리가 대상을 대하는 자세를 환기시키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늘 잣나무를 지나치면서도 한번도 그것을 바로 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동안 자신과 만나고 스쳐 지나간 사물과 사람을 그 디테일까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약속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 대상을 미끄러지면서 그 너머로 건너간다. 대개 그 지향점은 포괄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 불릴 수 있는 곳 근처이다. 어디 거래처의 사람뿐인가. 오래 같이 산 아내의 어깨에서 문득 우두 자국을 발견하고 새삼스러워하기도 한다. 우리는 늘 대상과 만나면서도 대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역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선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명상법으로 생각을 통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 볼 것을 권한다. 대상 너머로 건너뛰지 말고 대상에 사무쳐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 볼 것을. 그러나 이 수련을 해 본 사람은 안다. 1분 정도를 그럴 수 있다면 선의 비밀에 성큼 다가간 것이다. 대체로는 그렇게 못한다. 망상(妄想)이 명상(冥想)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무명(無明)의 뿌리는 깊다. 다 태우지 못한 과거의 업보가 발목을 잡고 있고, 미래에 대한 바람과 염려가 목을 짓누르고 있다. 전후(前後)를 단제(斷際)하여 현재에 즉(卽)할 수 있다면 구경(究境)은 멀지 않다.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를 보게 될 날은 언제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생각없이 대상과 하나 돼라"

언어는 불완전한 보조도구…이심전심은 '一心'

"비우면 지혜로 채워진다"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4

정념 ③

정념은 감추어진 몸과 마음을 보는데 가장 요긴한 수행법이다.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좋아함, 싫어함, 즐거움, 괴로움들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변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깨달아 그것을 놓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지 대신 지혜가, 의심 대신 깨달음이 자리잡게 된다. 마음 집중은 그릇을 비우는 것과 같으며,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면 그 속에 지혜가 차게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선승 스즈끼 스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상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커다란 횃불과 같이 완전히 태우라"며 "수행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불 속으로 던지고 완전히 태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즈끼 스님은 먼저 본질적인 대화를 중단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현재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생각의 흔적, 즉 상념을 남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망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날숨과 들숨, 즉 호흡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를 때,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르막 길을 오래도록 걸으면 몸과 마음은 쉬 지치고 간혹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잠을 청하고 싶기도 하다. 그 순간을 우리는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고 극복해야 한다.

> 몸과 마음을 완전히 태워
> 상념을 남기지 않으면
> 내면에서 빛이 일어나네

우리가 호흡에 정말로 집중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빛이 우리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육안(肉眼)으로 보여지는 빛이 아닌 마음 속에 타오른 빛이다.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 루이스 토마스는 우주 창조의 순간을 '거대한 빛덩어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과학자들은 우주 창조의 순간을 '빅 뱅(Big Bang)'이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 순간에는 어떤 충격의 소리(Bang)도 없었다. 소리는 대기 중에서 에너지의 상승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그것은 비어있는(空) 검은 빛깔의 공간일 뿐이다. 그렇다면 '빅 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거대한 빛이다"라고 말했다.

마음이 항상 깨어있어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집중이다. 자신의 육체와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당처에 완전히 밀착 집중시켜 그 진행되는 상태의 성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적나라한 자연적 성품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자신의 육체적 활동 혹은 호흡의 진행 상태나 감각적 느낌이 변화되는 상태를 현상에 두어 관찰하여 알아차리지 못하면 먼저 마음이 산란해지고 경계와 현상 따라 작용하여 한량없는 분별심을 낳게 된다. 또 나의 행동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착각을 일으켜 집중된 마음을 갖지 못해 진정한 수행을 이끌 수 없게 된다.

수행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 느낌, 마음의 작용 등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관찰하여 그것의 자연적 성품을 보게 하며 일어나고 사라지는 진리를 깨달으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아잔차 스님은 말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과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 느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 번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 모든 자연적 현상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여 면밀하게 관찰하라. 모든 현상에 대한 자연적 성품을 보게되며 깨닫게 되며 자기 자신이 무엇이며 몸과 마음이 무엇이며 자신은 무엇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혹은 책이나 얻어들은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가장 바르고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이와 같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지하게 반조하며 게으름없이 노력 정진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3

불교와 수학

68

일본 불교 특성

김 용 운

고대 일본 문명은 한결같이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 열렸다. B.C 4~A.D 3세기는 일본 농업혁명의 시기이다. 이때 주로 한국 남부지방에서 벼농사와 청동기 문화가 들어갔다.

농경문화에 관련된 일본 고대어는 한국어와 같은 어원을 갖는 것이 많다. 일본의 국가혁명(통일국가)은 4~5세기경 백제계의 기마군사집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일본의 샤먼(무당), 곰신앙에도 고대 한국어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가령 일본어의 곰은 구마(くま)이며 신(神)을 뜻하는 가미(かみ)는 한국어의 검과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일본의 제1차 종교혁명은 백제로부터의 불교전래로 야기되었다. 당연히 당시 불교경문은 백제어로 읽었으며, 일본어의 사찰을 뜻하는 '테라(寺)'는 백제어의 '절'을 어원으로 둔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를 갖는 것은 일본어의 '부처'라는 말이 한국어와 전혀 관련이 없이 '호또케(ほとけ)'라는 데 있다. 한국어의 '부처'는 '부다(Buddha)'에서 나왔으며 일본불교가 백제어에서 건너간 것임으로 '부처'와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과 전혀 무관한 '호또케'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수수께끼를 밝힘으로써 일본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백제로부터 일본 왕실에 보낸 것은 빛나는 금색의 불상과 경문이었다. 이때 일본 조정은 처음 보는 장엄한 불상에 놀라고 두려움을 가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 불교는 조사 신앙 수학도 한부분 집중 연구

저명한 일본의 불교학자 우매바라 교수는 일본불교의 밑뿌리에 '지옥의 사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불교에서는 지옥의 무서움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부처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 밝은 한국의 절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일본의 절이 모두 어둡고 금방 지옥의 사자라도 나올 것과 같은 섬뜩한 분위기를 주는 것도 이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 신도(神道)는 한국으로부터 건너간 무당(샤먼)신앙인데 유별나게 탈을 강조한다. 신은 탈(재앙)을 부리는 무서운 존재이며 인간은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신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불교가 지옥의 사상이라면 일본 신도의 본질은 '탈에 대한 무서움(탈의 사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어의 '탈'과 일본어의 '타타루(たたる)'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타타루(Tataru)'에서 가운데의 한 음절 '타(ta)'가 빠지고 한국에서는 '탈(Taru)'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호또케(Hotoke)는 무엇일까? 한국어의 '놀라다'를 '호들갑'이라고도 하는데 로마자로 표시하면

Hodulkap→Hodukap→Hoduka→Hodoke

이다. 즉 한국어의 '호들갑'은 위와 같이 변해서 일본어의 '호또케(ほとけ)'가 된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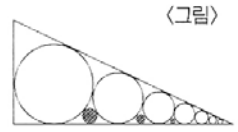
일본인은 집집마다 불단과 같은 신단을 차리며 한 집안에 모신다. 이들은 본질적으로는 신불(神佛)의 구별이 없다. 다만 불단은 죽은 조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신은 탈을 부리고, 부처는 놀라움을 주는 존재이며, 사람은 그 앞에 벌벌 떨며 위대한 초월자에게 기대어 구원을 바라면 된다는 생각이다.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천태종의 본산인 히에이산(比叡山)에서 보았던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높은 돌비석에 새겨진 '조일우(照一隅·한 곳만을 비춘다)'라는 구절이었다. 높은 산에 '광대한 천태산의 중심이 한 곳(또는 한 구석)만을 비춘다'라는 비석이라니? 일본불교는 어느 종파건 조사(祖師·종파의 창시자)에 대한 신앙, 또는 불교 가운데의 한 구절만을 열심히 외운다. 여러 위대한 스님 가운데에서 가까운 조사(祖師) 한 사람에 귀일(歸一)하고 경문 가운데의 한 구절 또 한 구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보편성보다는 탈을 두려워하고 놀라움을 달래는 것을 종교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전통 수학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편성(한국)과 한 구석만을 파고드는 성격(일본)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일본의 전통 수학은 주어진 도형(원, 삼각형 등)에서 계속 작은 공간을 파고들어 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신경상 불립의 법화사상의 전모와 진수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 II III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붙일 수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지식으로 도(道)를 얻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다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도사(道士)가 되었을 것이다.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 이야기
전 3권 완간!!!
1권 길은 길이 아니고 도는 도가 아니다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
3권 해와 달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이 책과 인연있는 사람에게 바라거니와 받아서 가득 찬 마음보다 주어서 텅 빈 가슴이 될지니 이로써 보살행, 부처행을 하소서 성내경 지음/각 권 15,000원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보약도 나쁘이다■칭찬은 없다■화장을 지워라■담배가 그렇게 유해한가■착한 일을 행하지 말라■해원동물은 사람이 아니다■운동을 하지 말라■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건강 염려증■병도 소질이 있어야 걸린다■여자는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차라리 쾌락! 교육은 이해나 설득이 아니다■몽둥이 외에는 약이 없다■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웃기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다■성불도 인연따라 일어난다■스스로 최상승의 근기를 만들라■묘법연화경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

中明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을 밝게하여 준다는 뜻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도서출판 조명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대수빌딩 201호 TEL 636-6873 FAX 636-6874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칸즈 다쓰이시박사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절재했으나 癌은 肺에까지 파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품으로 범위를 좁혀 숫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旣成醫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적의 개가를 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 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회생하면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로버트 죠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년은 젊어졌으며(체성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한바 있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완치가 되고 난후 다소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받아서 정성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등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건강(健康)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젊음을 더 젊게, 돌아온 回春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간직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生"의 주변에는 內外的많은 요인들이 시시각각 엄습해 옴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쇠해지고 건강 또한 잃게 되는것이 보편적 정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제한된 지면을 할애하는데 있어 전문적 이론등은 기술할 수 없음으로 요약하건데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人間의 體內에는 수많은 성장세포가 있고 그 성장세포의 촉진으로 하여금 태어나서 일정기간 상향곡선을 그리며 성장했다가 40대가 되면 다시 하향곡선으로 쇠퇴해가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차츰 늙음을 향해가는 노쇠현상이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생리와 자연현상을 뉘라서 막겠는가? 그런데 旣成醫化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려 30여종이 넘는 성장體세포가 형성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 십이지장, 폴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불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요즈음은 의외로 건강한 사람들중 주문 요청이 많아 더 이상 사양할 수 없고 또한 이곳에는 佛事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만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주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필자의 본분이 修行자임을 감안 약값을 받는 상인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바이며, 청정도량의 공덕불사에 조건없이 보시 동참 하실분에 한하여 직접 배달해 드릴 예정이다. 굳이 가격을 논하지 않고 無常布施 하실수 있는 분만 來訪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권에 한하여 배달가능함.
4일간격으로 계속 배달함.

※ 病환자중 현재까지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병원에서는 회생불능 판정으로 수술까지도 거부당한 극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전원 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마지막에 단계에서 오시면 너무 많은 시일과 어려움이 따름으로 초기에 오시면 간편히 치료됩니다.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2-3개월이면 흔적도 없이 완치됨.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분 연락바람.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담전화 : 직통 ☎ 0547)437-4136 , 437-4135